

기독교회의 IT 현황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연구 -인적 현황을 중심으로-

이면재*

백석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IT in Christian Churches -Focusing on Human Resources-

MyounJae Lee*

Professor, Division of Computer Engineering,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한국 기독교회의 IT 기술의 활용 현황을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교회 IT 사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교회 규모, 인력, 기술 보유 현황 등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0개 교회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다수 교회에서 IT 사역이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특히 중형 교회에서는 IT 사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교회 규모별 맞춤형 IT 전략, 보상 체계 확립, 인력 공유 및 교육 체계 구축 등을 발전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주제어 : 교회 IT, 교회 IT 현황, 기독교 IT 인력 분석, 기독교 IT 설문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current utilization of IT technologies in Korean Christian church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human resources, and to propose future directions for church IT ministry based on the finding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encompassing various variables such as church size, personnel, and technological capacity. Responses from 30 churches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in most churches, IT ministries are operated on a volunteer basis, with limited budgets and a lack of professional personnel. Notably, while medium-sized churches demonstrated a relatively high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T ministry, they were found to lack systematic support. Reflecting these realities, this study proposes development strategies such as tailored IT approaches by church size, the establishment of compensation systems, and the development of resource-sharing and training frameworks.

Key Words : Church IT, Current Status of Church IT, Analysis of Christian IT Personnel, Survey on Christian IT Ministry

*본 논문은 2025학년도 백석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교신저자 : 이면재(davidlee@bu.ac.kr)

접수일 2025년 05월 12일 수정일 2025년 05월 29일 심사완료일 2025년 06월 05일

1. 서론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과 코로나 질병의 확산, SNS 등의 확산등으로 한국 교회는 디지털 사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기독교회의 사역 환경에도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예배, 유튜브 설교 방송, 실시간 스트리밍, 디지털 현금 시스템 등 기술 기반의 사역이 일상화되면서, 교회 내 IT(Information Technology, IT) 인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IT 인력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자원봉사자나 비전문 사역자에게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디지털 시대의 특징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제와 방향으로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특징을 디지털 기술의 시대, 네트워크 시대, 소비자 주권의 시대, 전자 민주주의의 시대, 디지털 경제의 시대, 감성의 시대, 엔터테인먼트의 시대, 개인의 시대, 여성의 시대로 구분하여 목회 전략을 기술한 연구[1]가 있다. 로블록스, 제페토, 이프렌드의 메타버스 현황을 살펴보고 기독교회의 운영 상황을 분석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한 연구[2]가 있다. 온라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방안을 얻기 위해서 한 개의 한국 교회와 여섯 개의 미국교회의 사역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3]. 현 시대를 첨단 테크놀로지에 의해 주도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파악하고, 한국 교회가 이러한 시대를 분별할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진단한 연구[4]도 있다.

한국 교회의 주일 학교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설교 환경이라 할 수 있는 포노 사피엔스 시대와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5].

이외에도 연구[6]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한 올라인(All Line) 교회의 형태를 언급하면서 올라인 사역에 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다.

IT 기술을 활용하여 기독교 선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다양한 시각으로 알아보고 선교와 관련하여 적용가능한 기술적 측면과 실제 메타버스 적용사례와 이와 관련한 연관성을 찾아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연구[8]도 있다. 기독교회내의 메타버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연구[9], 메타버스와 예배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12], 메타버스와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연구[13], 메타버스를 기독교 선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14], 메타버스에 대한 적절한 기독교적 이해와 적용에 관한 연

구[15]등이 있다.

또한 기독교 IT 선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컨퍼런스도 개최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선교를 접목한 선교 방법과 교회 교육의 적용 사례들을 소개한 ITMC 미션 컨퍼런스[10], IT (스마트)를 활용한 효과적인 선교 방안과 협력을 모색한 IT선교포럼 등이 있다[11].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는 아직 체계적인 IT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과 인력 부족, 운영 전략 부재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팬데믹 이후 IT 기술 기반의 사역이 일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IT 인력에 대한 증원이나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예배 형태나 방향성에 대한 기존 논의와는 달리, 디지털 시대에 교회 내 IT 인력의 처우와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IT 인력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교회 규모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교회 사역의 디지털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교회의 IT 기술에 필요한 인적 요소와 인프라를 살펴본다. 3장에서 30개의 교회에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고 4장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5장에서 결론 및 추후 연구 방향을 기술한다.

2. 교회의 IT 기술 요소

현대 사회에서 IT는 교회의 사역 방식과 구조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온라인 예배, 디지털 콘텐츠 제작, 소통 플랫폼 운영 등이 필수화되면서, 교회의 IT 기술 활용 역량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교회의 IT 기술 요소를 '인적 요소'와 '인프라'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하고 이중 인적 요소 중심으로 분석하여 발전적인 디지털 사역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인적 요소

2.1.1 IT 전문 인력

교회 내 IT 사역의 성패는 전문 인력의 확보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IT 전담 간사, 영상 편집자, 웹/앱 개발자, 데이터 관리자, 음향 담당자, 촬영담당자 등은 기술

적 역량뿐 아니라 신학적 이해를 갖춘 융합형 인재로서, 교회의 사역 방향과 일치된 디지털 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술적 요소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였거나 습득할 의사가 있는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

2.1.2 자원봉사자 및 평신도 참여자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교회의 경우, 청년부나 전문직 평신도 중심의 IT 자원봉사자 참여가 대안이 된다. 이들은 영상 송출, 소셜미디어 운영, 홈페이지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디지털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IT 전문 인력의 이동시 IT 사역의 지속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1.3 교육과 훈련

IT 기술은 지속적인 변화와 학습을 요구하므로, 교회 내 IT 사역 인력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서, 교회의 비전과 연결된 디지털 리더십 함양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영상 송출 기술, 음성 녹화 기술, 영상 편집 기술, 홈페이지 유지 관리 등으로 IT 사역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2.2 인프라(Infrastructure)

기본 인프라는 모든 디지털 사역의 기반이 되는 기술적 환경이다. 인프라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이상의 영상 음향, 조명, 방송, 모바일기기를 포함하고 있다[7].

고속 인터넷 회선은 실시간 스트리밍,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온라인 예배 및 행정 시스템 운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더불어, 교회 데이터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서버(또는 클라우드 시스템)와 정기적 백업, 네트워크 보안 체계(방화벽, VPN 등)는 교회가 디지털 사역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필수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인프라는 예배뿐 아니라 행정 및 사역 전반에 걸쳐 일관된 디지털 기반을 제공한다.

예배의 온라인화는 단순히 영상 송출을 넘어, 고품질의 예배 콘텐츠 제작과 생중계에 필요한 기술을 요구한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안정적인 음향 시스템, OBS 또는 ATEM Mini와 같은 스트리밍 하드웨어는 예배 실황을 시청자에게 몰입감 있게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설교 영상과 찬양 콘텐츠의 사후 편집을 위한 영상 편집 시스템, 방송용 조명 장비는 예배를 효과적으로 디지털 콘

텐츠로 전환하는 데 필요하다.

교회 조직의 관리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의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적 관리 시스템은 교인의 출석, 심방, 등록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재정 및 회계 시스템은 현금 및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기록·분석하는 데 필수적이다. 협업 도구(Google Workspace, Microsoft 365)는 교역자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폼 도구는 설문조사, 행사 신청 등 대외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2.2.1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디지털 사역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은 안정적인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인프라이다. 고성능 카메라, 음향 장비, 라이브 송출 시스템, 인터넷 회선의 품질은 예배 및 콘텐츠의 전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조명장비와 영상 자료와 각종 교회 자료를 저장할수 있는 백업 장치도 필요하다. <Table 1>은 기본 IT 인프라를 보여준다. 초고속 인터넷,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와 클라우드, 백업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장비로 구성된다.

<Table 1> Basic IT Infrastructure

Component	Description
High-Speed Internet	Stable upload/download bandwidth for streaming and cloud services
Server/Cloud System	For website hosting, data storage, and management platforms (e.g., AWS)
Backup System	Regular backup of important data (e.g., sermon videos, church records)
Network Security	Firewalls, VPN, antivirus software for safe data handling

<Table 2>는 예배와 영상 송출 편집 및 조명 시스템을 보여준다.

<Table 2> Worship & Video System

Component	Description
Camera Equipment	High-definition cameras (DSLR, PTZ) for recording/live streaming
Audio System	Mixers, microphones, audio interfaces, and speakers for sound reinforcement
Streaming Tools	Streaming software/hardware such as OBS, Wirecast, ATEM Mini
Video Editing Setup	Video editing PC and software (e.g., Adobe Premiere Pro, Final Cut Pro)
Lighting Equipment	Basic lighting for professional video production

<Table 3>은 스마트 한 환경과 급속하게 발전되는 AI 기술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시스템을 보여준다.

<Table 3> Smart &AI-Based Infrastructure

Component	Description
AI Chatbot	Automated responses for newcomers and FAQs (based on ChatGPT or custom AI)
Content Generation AI	Tools to auto-generate sermon summaries, bulletins, newsletters
Data Analysis System	Tracks trends in attendance, interests, and survey results
Speech-to-Subtitle Tools	Auto-generate sermon subtitles using tools like Whisper or YouTube captions

2.2.2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예배 송출을 위한 OBS Studio, Zoom, YouTube Live 등의 플랫폼 활용 능력과 함께, 교회 전용 웹사이트, 온라인 헌금 시스템, 교적 관리 소프트웨어 등의 도입이 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갖춰진 플랫폼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당연히 오피스나 아래한글등의 문서 편집기도 필요하다.

2.2.3 데이터 관리 체계

교회 사역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교인 정보 및 사역 기록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 CRM 시스템, 보안 백업 체계 등을 구축함으로써, 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 해킹이나 바이러스가 유포되지 않도록 백신 설치도 필요하다. <Table 4>는 교회 행정 및 관리시스템 위한 구성요소를 보여준다.

<Table 4> Administrative and Management System

Component	Description
Church Member Database	System to manage member records, attendance, and visitation (custom or SaaS-based)
Finance/Accounting System	Tools to manage offerings, expenses, and budgets (e.g., Excel, Korean accounting SW)
Collaboration Tools	Google Workspace, Microsoft 365 for document sharing and team work
Form &Survey Systems	For event registration, attendance tracking (e.g., Google Forms, Kakao forms)

3. IT 현황 분석

3.1 설문 조사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대한민국 내 기독교회(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IT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실시되었다. 기초 정보 수집을 통한 교회 규모를 분류하고 목회자의 연령, 성별, 교회 규모 등을 통해 응답자의 배경을 파악하고 응답 결과를 다양한 변수로 교차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교회 내 IT 담당자의 유무, 역할, 전문성, 업무 분장 등을 파악하여 전반적인 IT 인력 운영 체계를 진단한다.

단순한 유무 확인을 넘어 전공 여부, 겸직 상황, 수행 업무의 구체성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역량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교회 규모별 IT 현황과 연계하여 정책적 제언과 지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한다.

<Table 5>는 설문 조사에 응답한 교회의 목회자의 성별, 연령대, 출석 인원에 대한 표이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25년 5월 말부터 6월초에 이루어졌으며 총 30명이 응답하였다.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Table 5> Overview of Survey Participants

Category	Sub Category	number of people	Percentage (%)
Gender	Male	23	76.7%
	Female	7	23.3%
Age	30	6	20.0%
	40	12	40.0%
	50	11명	36.7%
	60	1	3.3%
Church Attendance	0~20	3	10.0%
	20~100	10	33.3%
	100~300	9	30.0%
	300~1000	6	20.0%
	1000~	2	6.7%

3.2 설문 분석

<Table 6>은 출석 성도수에 따른 IT 사역자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교회 규모와 IT 인력 확보 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반드시 규모가 크다고 해서 IT 인력이 많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0명에서 20명인 경우 IT 사역자가 없거나 겸직을 수행하는 많았다. 21명에서 100명사이의 출석교인 경우 전임 사역자가 3명 파트 타임이

3명, 겸직이 3명, 아예 없는 경우도 1명 있었다. 이와 비교하여 특히 100~300명 사이 중형 교회가 상대적으로 IT 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 규모의 교회는 소형 교회보다는 예산이 많지만,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엔 아직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IT 사역자를 위한 전담 급여 또는 외부 위탁 비용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중형 교회는 일반적으로 교육, 예배, 선교, 돌봄 같은 전통적인 사역에 집중하여 IT 사역은 아직 보조적 기능으로 인식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소형 교회라도 전담 IT 관리자가 존재하는 사례가 많아, 자원봉사자 기반 혹은 교인 중 IT 유경험자 활용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6〉 Comparison of IT Ministry Personnel Based on Church Attendance

Church Attendance	Full-time dedicated IT administrator	Dual role	None	response
1000~	2 (Full Time 1, Part Time 1)	1	1	6
301~1000	None	2	None	2
100~300	2(Full Time 1, Part Time 1)	5	1	9
21~100	6(Full Time 3, Part Time 3)	3	1	10
0~20	None	1	2	3

〈Table 7〉은 출석성도수별 IT사역자의 IT 관련전공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IT 전공자 부족은 중형 교회(100~300명)에서 가장 두드러지며, 이는 IT 사역의 전문성 확보에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형 교회는 전공자뿐 아니라 외부 용역까지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IT 사역을 유지하고 있다. 소형 교회 중 일부는 전공자 활용에 적극적인 반면, 정보 부족 또는 외부 의존이 함께 존재하는 양극화 현상이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7〉 Comparison of IT-Related Majors According to Church Size

Church Size (Attendance)	IT Major	Non-Major	Outsourcing	Not Sure	Total
Over 1000	2	2	2	0	6
300~1000	1	1	0	0	2
100~300	0	8	0	0	8
20~100	1	7	0	1	9
Under 20	2	0	1	0	3
Total	6	18	3	1	28

〈Table 8〉은 출석 성도수에 따른 IT 사역자 인원을

비교한 표이다. 1인에서 4인 IT 인력이 가장 일반적(17명, 61%)이다. 전체 28개 교회 중 절반 이상이 2~4명의 인력을 IT 사역에 배정하고 있다. 1인에 의존하는 교회도 다수(9명, 32%)였다.

소형 교회(20명 이하), 중형 교회(100~300명) 등에서 특히 많았다. 이는 담당자 1인이 모든 IT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를 의미할 수 있으며, 업무 부담과 전문성 부족의 위험이 있다. IT 인력 없음은 극소수(1교회, 20명 이하 규모)에서 단 1곳만이 IT 인력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5명 이상 인력 보유는 1000명 이상 교회로 1교회뿐이었다. 이는 대형 교회만이 전담 인력 외에도 지원 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T 사역이 전문화되고 분업화되어 있는 교회로 추정할 수 있다. 교회 규모가 클수록 IT 인력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100~300명 규모 중형 교회는 1명 또는 2~4명 인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담 또는 전문 인력 여부는 별도 고려가 필요하며 소형 교회는 주로 1인 체계에 의존하거나 부재 상태이며, 이들을 위한 IT 인력 공유 플랫폼 또는 협력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Table 8〉 Comparison of the Number of IT Ministry Personnel by Church Attendance Size

Church Size (Attendance)	1 Person	2-4 People	5 or More	None	Total
Over 1000	1	4	1	0	6
300~1000	0	2	0	0	2
100~300	3	5	0	0	8
20~100	3	6	0	0	9
Under 20	2	0	0	1	3
Total	9	17	1	1	28

〈Table 9〉는 IT 사역자들의 직무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응답 결과에 따르면, 가장 일반적인 역할은 '예배 영상/음향 촬영 및 송출'(27건)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응답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팬데믹 이후 비대면 예배의 일상화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확대에 따라 교회가 기술 기반 예배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역할은 '교회 홈페이지 관리'(19건)와 '네트워크 및 장비 관리'(14건), 그리고 '성도 데이터 및 출석 관리'(14건)였다. 이는 교회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홈페이지, 네트워크), 내부 인프라 관리, 행정 데이터 기반의 목회 운영에도 일정 수준의 기술 인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교회 IT 사역이 단순 기술 지원을 넘어, 예배 전달, 대외 커뮤니케이션, 내부 행정 효율화가

지 다층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특히 '성도 데이터 및 출석 관리'가 기술 담당자의 역할에 포함된 점은 교회도 점차 데이터 기반의 사역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응답 항목 중 일부는 복수 선택이 가능했기 때문에,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는 IT 관리자가 다수 존재함을 보여주며, 이는 겸직의 현실, 즉 하나의 담당자가 다수의 기술 영역을 맡고 있는 구조를 반영한다. 이러한 구조는 인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전문성이 분산되거나 기술적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도 내포한다.

<Table 9> Role of the IT ministry staff

Role	Respondent Count
Worship video/audio recording and streaming	27
Church website management	19
Network and equipment management	14
Congregation data and attendance management	14

<Table 10>은 출석 성도수에 따른 IT 사역자들의 직무를 보여준다. 교회 규모에 따라 IT 사역자가 수행하는 역할의 범위와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출석 성도 수에 따라 다섯 개 규모로 나누었으며, 각 규모별 IT 역할 수행 빈도와 응답자 수를 집계하였다.

분석 결과, '예배 영상/음향 송출' 역할은 모든 교회 규모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수행되는 역할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중소형 교회(21-100명, 101-300명)에서 이 역할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예배의 기본 전달 요소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교회 규모에 관계없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한편, '교회 홈페이지 관리'와 '네트워크 및 장비 관리', '성도 데이터 관리' 등의 다층적 역할은 3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도 데이터 관리'는 출석 성도 수가 1,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에서 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규모가 클수록 체계적 정보 관리와 기술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이하게도 출석 성도 수가 20명 이하인 교회에서도 다양한 IT 역할이 수행되고 있었으며, 이는 소형 교회일지라도 디지털 예배 송출 및 홈페이지 관리 등 기본적인 디지털 운영을 외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 수 대비 복수 역할 수행 빈도가 높다는 점은 겸직과 과중한 업무 분산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결

과는 교회 IT 사역의 전문성과 역할 분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중형 교회의 경우 복합적 IT 수요에 비해 인적 자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디지털 사역 구조화가 중장기적으로 요구됨을 시사한다.

<Table 10> comparison of IT ministry roles based on church size

Church Size (Attendance)	Network	Website management	video/audio	Data management
Over 1000	3	4	6	5
301~1000	2	2	2	0
101~300	5	6	8	3
21~100	3	5	8	1
20 or fewer	1	2	3	5

<Table 11>은 IT 사역자들의 자격증 유무에 관한 비교이다. 응답 결과, 응답자의 71.4%에 해당하는 20명이 '없음(No)'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있음(Yes)'은 3명(10.7%)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5명(17.9%)은 '모름(Don't know)'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회 내 IT 사역이 비전문 자원봉사자나 겸직 사역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특히, 교회 규모나 예산에 관계없이 디지털 예배, 홈페이지 관리, 네트워크 운영 등 고도화된 IT 인프라가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교회 IT 인력의 전문성 결여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또한 '모름'이라는 응답이 적지 않다는 점은 교회 내 IT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과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의한다. 이는 교역자나 운영진이 기술 인력의 전문성을 검증하거나 육성하는 데 관심이나 체계가 부족함을 반영할 수 있다.

요컨대, 전문 자격을 보유한 IT 인력 확보 및 교육 체계 마련이 교회 IT 사역의 발전에 핵심적 요소임을 이번 결과는 뚜렷이 보여준다. 향후 교회 IT 인력에 대한 교육적 투자, 자격증 취득 장려,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모델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11> IT Certification status

Certification Status	Respondent Count
No	20
Don't know	5
Yes	3

〈Table 12〉는 출석성도 수에 따른 IT 자격증 보유 현황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다수 교회가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특히 101-300명(중형 교회)과 301-1000명(중대형 교회)에서는 모두 “없음”으로 응답하였고, 자격증 보유 여부에 대한 정보조차 모른다는 응답은 없었다. 이는 중간 규모 교회일수록 자격증 보유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 보유율은 매우 낮음을 시사한다.

반면, 출석 성도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교회에서는 ‘모름(Don't know)’ 응답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IT 인력에 대한 관리 및 정보 파악이 체계적이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규모가 클수록 조직적 구조가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IT 인력의 자격 여부에 대한 정보 비대칭 현상이 존재하는 셈이다.

한편, 출석 성도 수가 21-100명인 중소형 교회에서는 자격증 보유 인력이 비교적 분포되어 있었으며(2명), 20명 이하의 소형 교회에서도 1건의 자격증 보유 응답이 있었다. 이는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자원 봉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자발적 노력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전문 IT 인력 확보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격증 보유 여부 역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대형 교회의 경우 정보 불명확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IT 사역의 조직화와 인사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함을 제안한다.

〈Table 12〉 IT Certification Status by Church Size

Church Size (by Members)	Yes	No	Don't know
20 or fewer	1	1	1
21-100	2	7	0
101-300	0	8	0
301-1000	0	2	0
Over 1000	0	2	4

〈Table 13〉은 교회에서 IT 사역자에게 급여 또는 보상 체계가 존재하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총 29건의 응답이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20명(약 69%)이 ‘무급(자원봉사)’이라고 응답하여, 현재 교회 IT 사역의 상당 부분이 비전문적, 비보상 구조에 기반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반면, ‘정기적인 사례 지급’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단 2

건(약 7%)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교회가 IT 사역을 전문 직무로서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일부 교회에서는 ‘사례비 수준’으로 부분적인 보상(6건) 또는 외부 용역 형태로 처리(1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역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보상 체계는 여전히 미비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응답 분포는 교회 IT 사역이 예배 송출, 홈페이지 운영, 장비 관리 등 전문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투입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다. 특히,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구조는 기술 지속성과 세대 교체, 보안 안정성 측면에서 중장기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회가 IT 사역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규 인력 채용, 사역자 보상 체계 마련, 외부 위탁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인사 및 재정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본 결과는 교회가 기술 사역을 ‘단순 보조’에서 ‘핵심 인프라’로 인식 전환을 해야 할 시점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Table 13〉 IT Ministry Salary Status

IT Ministry Salary Status	Respondent Count
Unpaid (Voluntary work)	20
Honorarium level payment	6
Regular monthly salary	2
Outsourced service fee	1

〈Table 14〉는 교회 규모에 따라 IT 사역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모든 규모의 교회에서 ‘무급(자원봉사)’ 비율이 가장 높거나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출석 성도 수 100명 이하의 소형 교회(20명 이하, 21-100명)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무급으로 IT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형 교회(101-300명)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9명의 응답자 중 7명이 무급, 단 1명씩 사례비와 정기급여를 받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중소형 교회의 IT 사역은 대부분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사역을 전문적 혹은 구조적 역할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흥미로운 점은 1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에서 사례비 지급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 점이다. 5명 중 3명이 사례

비를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1명은 정기적인 급여를, 또 다른 1명은 여전히 무급으로 활동 중이었다. 이는 대형 교회가 IT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보다는 일부 사례비 지급을 통해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301-1000명 규모의 교회에서는 외부 용역 형태의 지급이 유일하게 확인되었는데, 이는 교회 내부 인력 대신 외부 전문 인력을 단기 고용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중대형 교회가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해 외주화를 활용하고 있는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다.

요컨대, 본 분석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IT 사역자를 여전히 비보상 구조에 두고 있다는 현실과, 일부 교회에서는 점차 사례비 혹은 외부 위탁 형태의 보상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는 흐름을 동시에 보여준다. IT 사역이 예배, 행정, 홍보 등 교회의 핵심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임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공식적 보상 및 직무 인식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남는다.

<Table 14> IT Certification Status by Church Size

Church Size (by Members)	Regular	Honorarium	Outsourcing	Unpaid (Volunteer)
20 or fewer	0	1	0	2
21-100	0	1	0	9
101-300	1	1	0	7
301-1000	0	0	1	1
Over 1000	1	3	0	1

4. 분석을 통한 발전 방향

본 연구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회 규모별로 IT 인력의 배치와 보유 양상에 있어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특히 출석 성도 수가 100~300명 사이인 중형 교회에서 IT 전담 인력이 부족하거나 부재한 사례가 빈번하였으며, 겸직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예산과 조직 여건상 전문 인력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며, 전통적 사역 우선순위에 밀려 IT 사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1) 중형 교회를 위한 맞춤형 IT 지원 정책 마련

중형 교회는 소형 교회에 비해 일정 수준의 재정 여력을 갖추고 있으나, IT 사역자에 대한 정규 고용 또는 외

부 위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교단 혹은 지역 협의체 차원에서 공유 IT 사역자 인력풀, 협력 장비 도입 지원, 온라인 콘텐츠 제작 툴 교육 등을 제공하는 중간 지원형 모델이 필요하다.

2) IT 인력 확보를 위한 자원봉사 기반 구조 개선

중소형 교회의 경우 교인 중 IT 관련 경력을 가진 자원봉사자의 활용도가 높았으며, 이는 긍정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명확한 역할 규정, 보조금 또는 사례비 지급 체계 마련, 기술 교육 연계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사역의 지속 가능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자원봉사자 기반 IT 사역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단기 위촉 형태의 준전문 사역자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IT 인력 다기능 수행에 따른 리스크 대응

설문에 따르면, 상당수 교회에서 1명이 IT 전반을 담당하거나 2~4인의 협업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특히 중소형 교회는 담당자 1인이 장비 운영, 송출, 데이터 관리, 보안까지 총괄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과중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 분담형 직무 매뉴얼 작성, 기초 기술 매뉴얼 보급, 간이 업무 자동화 툴(예: OBS 세팅 자동화 스크립트) 보급 등을 추진할 수 있다.

4) 교회 규모 연계형 인력 연계 플랫폼 구축

대형 교회는 상대적으로 전공자와 외부 용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소형 교회와의 기술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단 혹은 협회 차원의 '교회 IT 인력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형 교회에서 활용하지 않는 인력 자원을 중소형 교회와 연결하거나, 리모트 기반 기술 지원을 가능케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5) 교회 IT 사역의 본질 재정의를 의사결정 반영

중형 교회가 전통적 사역(예배, 교육, 선교 등)에 집중하면서 IT 사역이 보조적 역할로 인식되고 있는 현상은 교회의 미래 대응 전략에 구조적 한계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IT 사역을 예배 전달, 공동체 유지, 선교 확장의 핵심 기반으로 재정의하고, 교회 운영 위원회 혹은 당회 내에 IT 사역 정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략 수립과 예산 배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추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교회내의 IT 인력 현황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한국 교회의 IT 사역은 대부분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었다. IT 관련 자격증 보유 인력은 극히 소수였으며, 대부분의 교회는 정규 IT 사역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교회가 IT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력 있는 투자 및 인력 전략이 부재함을 반증한다. 특히 출석 성도 수 100~300명 규모의 중형 교회에서의 IT 사역 취약성은 조직적 차원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IT 사역의 제도화 및 정규직화, 교회 규모별 예산 모델 수립, 노회 또는 교단 단위의 인력 공유 및 협력 체계 마련, IT 인력 교육과 인증 제도의 도입 등을 발전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30교회에 대한 설문조사로 대표성을 가지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교회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기반 정성 연구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량적 설문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현장 사역자의 경험, 어려움, 인식 등을 탐색하는 심층 인터뷰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IT 기술별 활용 분석 확대도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영상 송출, 홈페이지 운영, 데이터 관리, AI 설교 분석 도구 등 세부 기술별 도입 및 활용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 기술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별교단별 비교 연구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단이나 지역별로 IT 인프라 격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지역 간-교단 간 비교 연구를 통해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신앙 형성과 IT 사역 효과성 분석도 필요하다. IT 사역이 교인의 신앙생활, 공동체 형성, 전도 효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조사하여, 기술의 영적 효과성 평가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다.

REFERENCES

- [1] Sung Bong Ha, Ministry Strategies for the Digital Era, Entrorium, 2018.
- [2] MyounJae Lee, "A Study on Development Strategi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Christian Churches in the Metaverse Platform", Journal of KIOTS, vol.11, no.2, pp.47-54, 2025.
- [3] Kye Jae Kwang, "An Analysis of Digital Mission Fields' Ministry in "With COVID-19"", Theology and Praxis Vol.79, No.72, pp.531-558, 2022.
- [4] Dong Hwan Kim, "Practical Ways to Help Korean Churches Possess an Ability to Discer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ology and Praxis Vol.69, No.69, pp.743-774, 2020.
- [5] Sung Hwan Park, "Preaching for Children by Using Smartphone in the Era of Phono-Sapiens", Journal of Evangelical Practical Theology, Vol.59, pp.173-207, 2021.
- [6] Seung Chan Lee, "A Study on the All-line Ministry Methodology of Korean Churches in the Pandemic Era - Focusing on the All-line Ministry of Chungsin Church",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h.D, 2021.
- [7] DongHyun Lee, "Church Informatiz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hurch IT Infrastructure", Monthly Pastoral Ministry, 2012.2.
- [8] YongHee Lee, Utilization of IT Technology in th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revitalize Christian Mission : Focused on Metaverse, The Korean Society of Mission Studies, No.65, pp.248-275, 2022.
- [9] HaeRoung Cho, Changes and Challenges in the Pastoral Structure of Missional Churches in the Metaverse Era: Focusing on the Application to the Korean Church, Mission and Theology, No.60, pp.311-343, 2023.
- [10] Hyun Mo Pyo, "Exploring Mission Strategies in the Digital Age Together", Korea Christian Press, 2023.7
- [11] JeeHee Lee, "The integration of IT, a key element of our era, with mission, the will of God, is essential", Christian Today, 2017.6.18.
- [12] Hyung Rak Kim, "A Study of Christian Metaverse Community and Worship", Theology and praxis, No.76, pp.41-66, 2021.
- [13] Taejin Kim, Ohbyung Kwon, and Jooyoung Kang, "The Metaverse and the Christian Worldview", 38th Annual Conference of the Christian Worldview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pp.697-721, 2021.
- [14] Sung Hyuk Nam, "Exploring the Possibi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etaverse as a Digital Mission Field",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Vol.54, No.2, pp.103-124, 2022.6.
- [15] Geonchun Park, Wonyoung Bong, "The Christian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Metaverse: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Metavers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2, No.7, pp.511-523, 2022.7.

이 면 재(MyounJae Lee)

[종신회원]



- 2009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 2020년 8월 :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관심분야>

사물인터넷, 게임, MPEG, 기독 IT